

국제뇌교육협회 발행 뇌교육 온라인소식지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IBREA News 2008.4

뇌교육 글로벌 뉴스



해외 100개국에 지부를 두고 뇌교육의 연구, 보급, 인증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 뉴욕에 세계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 뇌교육 세계화를 이끄는 중추기구 www.IBREA.org

[IBREA- World Wide]

□ 국제뇌교육협회, 유엔 DPI 정식회원 등록추진



국제뇌교육협회는 뉴욕에 개설된 미주뇌교육협회 사무소를 통해 유엔 DPI(공보처) 정식회원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엔공보처는 유엔의 전체 홍보를 담당하며 UN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이다. 이번 국제뇌교육협회의 유엔 DPI NGO가입은 뇌교육의 해외 보급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HSP12단협회, 국제뇌교육협회 단체회원사 가입 및 산하단체 인증

대표적인 뇌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HSP12단’을 한국에서 보급하고 있는 ‘한국HSP12단협회’는 국제뇌교육협회의 단체회원사로 등록된 동시에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초 ‘국제뇌교육협회 산하단체’로 인증을 받았다. 단체회원사로서 산하단체 인증을 받은 한국HSP12단협회는 국제뇌교육협회로부터 뇌교육에 관한 기본자료를 제공받는 동시에 향후 뇌교육 보급활동에 있어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 일본뇌교육협회, 일본 내 뇌교육보급 선도

지난 3월 14일 일본 내 뇌교육 보급을 총괄할 일본뇌교육협회(IBREA-JAPAN)이 설립된 이후, 일본에서의 뇌교육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 일본뇌교육협회는 지역시민 건강을 위한 뇌교육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잡고, 이미 지난 2월 동경 건강박람회 참가, 3월 요코하마 통합의료전에 참가해 뇌교육을 통한 건강프로그램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일본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단월드의 후원을 받아 4월 5일 매주 1회씩 지역시민 건강을 위한 브레인단요가 무료오픈플래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도강사는 일본뇌교육협회 소속 뇌교육강사가 파견된다.

특히, 일본뇌교육협회는 두뇌올림픽아드 IHSP0의 일본대회 주최기관으로 인정받아 오는 7월 20일 쓰꾸바 국제회의장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IHSP0-JAPAN’를 개최할 예정이다. 닌텐도 DS 등 이미 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일본에서의 두뇌올림픽아드 행사는 일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뇌교육 세미나가 함께 개최되며, IHSP0 창설자인 이승현 국제뇌교육협회장을 비롯해 제시존스 교수 등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향후, 일본뇌교육협회는 뇌교육보급의 국제중추기구인 국제뇌교육협회(IBREA)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IBREA-KOREA] 부산교육청, 뇌교육 해피스쿨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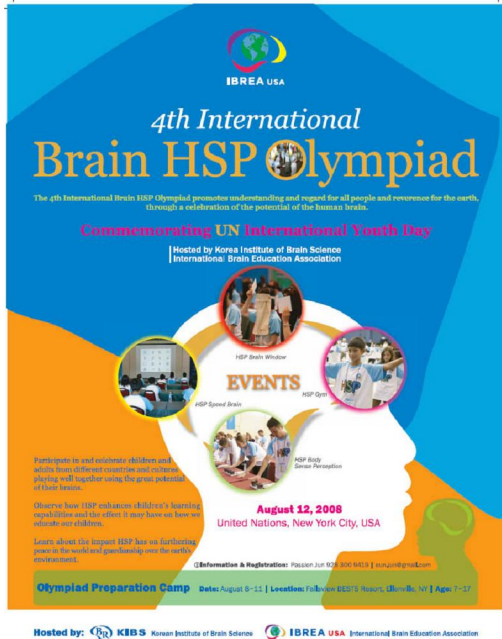
한국 교육개혁의 선두주자인 부산교육청이 '뇌교육'을 전격 도입했다. 지난 4월 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국제뇌교육협회의 자문기관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과 지역국학운동의 산실인 부산국학원과 손을 잡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피스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집중력 향상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부산국학원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성교육에 접목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적응학생의 적응력 제고 해피스쿨 직무연수를 학기당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모델학교 운영을 통하여 인성수련, 흡연예방교육, 학부모특강, 대안교육지원센터 수강학생들에게 심성수련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일반학생들의 뇌력향상으로 인성교육과 아울러 학습집중력 향상프로그램인 전교생 뇌체조 실시, 명상의 시간 운영, 뇌교육 집중력반 등을 시내 10개 학교에서 해피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적응력 제고 및 학습집중력 향상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를 연말에 성과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번 부산교육청의 뇌교육 도입은 우리나라가 아닌 선진교육계에서 뇌의 중요성과 체험교육 중심의 새로운 교육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뇌교육이, 본격적으로 종주국인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도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BREA-KOREA/USA] 두뇌올림피아드 IHSP0 국가별 대회 개시



“New Challenge for the Brain(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란 슬로건을 가진 세계 유일의 두뇌올림피아드 IHSP0(International Brain HSP Olympiad: 국제브레인 HSP올림피아드) 한국대회가 본격 시작되었다.

IHSP0는 2005년 한국에서 창설된 국제올림피아드로 작년 미국 뉴욕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7개국 대표단 800여명이 참가하며, 21세기 뇌의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올림피아드로 주목받고 있는 국제대회.

작년 미국서 열린 3회 국제대회를 IHSP0 창설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던 국제뇌교육협회는 올해 4회 대회의 한국대회 주최권한을 받아 4월~6월까지 열리는 전국 예선, 본선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IHSP0의 종주국 답게 한국대회는 4-5월간 전국 1천개 학교, 10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본선대회는 6월 8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에서 개최된다. 한국대회의 규모가 큰 만큼, 예선은 해당 지역의 국학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고, 본선대회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과 공동주최로 열린다. IHSP0 2008 국제대회는 약 10개국에서 국가별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8월 12일 미국 뉴욕서 개최된다.

4회 대회부터는 국가별 뇌교육협회가 해당 국가의 올림피아드를 주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주뇌교육협회는 미국 대회를, 일본뇌교육협회는 일본대회를 주최하는 형태이다.

국가별 대회가 6-7월 중 마무리되면, 해당 국가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IHSP0 창설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과 뇌교육의 세계기구인 국제뇌교육협회 공동주최로 오는 8월 12일 미국 뉴욕서 4회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국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IBREA-KOREA] 100세 장생세미나 후원 및 자료집 발간



국제뇌교육협회는 지난 4월 1일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100세 시대 두뇌건강과 뇌교육” 세미나를 공식후원하였다.

이 날 세미나에서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 협회장은 “100세 시대의 새로운 지표는 ‘장생(長生)’이며, 장생의 철학은 우리 민족의 선도문화 속에 있는 것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살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장생’에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건강의 4대 조건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이 모두 담겨있으며 나아가 흥익철학이라는 삶의 목적과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장생의 철학을 뇌교육을 통해 세계화하기 위한 ‘국제장생학회’의 창립을 발표하며, 뇌교육을 통해 노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인성을 완성하는 지혜와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날 세미나에는 노인건강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제시존스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 플러튼, Center for Successful Aging 소장)가 방한해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준비’란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제시 존스 교수는 ‘Successful aging’은 뇌를 젊게 쓰는 것임을 밝히며, 강연 도중에 파워 넘치는 댄스를 직접 선보이며 청중들에게 즐겁게 도전하며 사는 마인드가 중요함을 알려 주었다. 더불어, 미국에서 새로운 교육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뇌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제시 존스 교수는 이승헌 협회장과 지난 2월 미국에서 노인건강 분야의 뇌교육 공동저서인 ‘In Full Bloom’을 출간한 바 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주최하고 (사)국제뇌교육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보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새로운 지표로 우리의 철학이 담긴 ‘장생(長生)’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장생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대중들의 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한편, 국제뇌교육협회는 협회 회원들에게 해당 세미나의 자료집을 제작, 무료발송 하였다.

[IBREA KOREA] 뇌교육 해피스쿨 학교, 4월 한달간 48개교 증가

4월 한달간 해피스쿨 48개교 증가, 총 89개교 협약, 100호 돌파 앞뒤



행복한 학교 Happy School 캠페인

해피스쿨 캠페인 목표

| | |
|--|---|
|  <p>흡연없는 학교 청소년 금연캠페인을 통한 청소년 건강 회복</p> |  <p>폭력없는 학교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통한 행복학교 실현</p> |
|  <p>뇌를 잘 쓰는 학교 청소년 '뇌활용'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성회복</p> |  <p>서로 통하는 학교 '뇌활용'을 통한 교사, 학생, 학부모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p> |

뇌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해피스쿨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피스쿨 캠페인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과 지역국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및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뇌를 잘 쓰는 학교, 서로 통하는 학교, 흡연과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운동이다. 2007년 12월 5일 천안의 성남초등학교의 제1호 협약식 이후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한 달 동안 48개교가 해피스쿨 협약을 추가로 맺으면서 4월말까지 해피스쿨은 총 89호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협약을 체결한 학교들은 협약기간동안 주체적인 인식과 바른 정체성, 육체적·사회적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열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맞게 선택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뇌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생대상으로 활기찬 학급을 위한 5분 뇌교육 명상, 인재를 키우는 뇌 운영프로그램 BOS교육, 학교폭력 선도학생 교육, 금연교육, 방과후 학교(뇌교육 인성), 흥익청소년 인성수련, 나라사랑 인성 수련, 계발활동 등이 있다.

특히, 4월에는 부산교육청과의 시도내 해피스쿨협약체결이 이루어져 뇌교육을 통한 공교육의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